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 본격화

12월 29일 기념사업회 현판식 세미나·선체험 등 사상조명

한국 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1849~1912)의 열반 100주년을 기념해 선사의 업적 등을 재조명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 지운·집행위원장 주경, 이하 사업회)’는 구랍 29일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수덕사 주지)은 “경허 선사는 불교가 어려울 때 꺼져가는 선맥을 살린 선지식이였다. 불교 중흥을 이룬 당사자임에도 기행에 치우쳐 온전히 평가 받지 못해 열반 100주년을 계기로 대대적인 선양사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을 위해 사업회는 ▷열반100주년 기념다례 ▷〈경허집〉 재출간 ▷학술세미나 ▷선서화전 ▷국제선수행체험 ▷백고좌법회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을 밝혔다.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다례는 6월 13일 경허문도와 전국 수좌스님 등이 모여 경허 선사의 열반을 추모하는 전국 규모의 다례로 서울 조계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영정

사업회는 기존의 〈경허집〉 및 〈경허평전〉 출간을 5월 중 기획 중이다. 수덕사에서 발간한 〈경허집〉을 저본으로 월정사본 통도사본 등 기 발간된 것들과 비교해 통합본을 발간한다.

집행위원장 주경 스님은 “〈경허평전〉은 경허 선사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이해를 바로 잡아 선종의 대중장이자 한국불교 중흥조로서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현장답방과 다양한 제목을 통해 새롭게 재조명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념사업회 현판식에서 기념사업회장 지운 스님

10월에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경허학술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를 통해서도 경허 선사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가 학술적으로 재조명된다.

선필로도 유명했던 경허 선사를 기념한 선서화전 및 유물 전시회도 3월 26일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경허 선사의 작품뿐만 아니라 선미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국 스님들의 작품이 초대된다.

서울 화계사에서는 경허 선사의 간화선

정신을 담은 선수행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국제선수행체험프로그램이 6월 중 운영된다. 행사에서는 경허 선사가 수행했거나 제자들에게 전한 화두를 간택해 외국인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가하는 형태로 열린다.

경허 선사의 삶을 영상으로 복원한 다큐멘터리도 제작된다. 프로그램에서는 경허 선사 출가에서부터 열반까지를 탐방하며 선사의 모습을 그린다.

3~7월에는 덕숭총림 방장 설경 스님 등 선승들이 자신의 주석처에서 경허 선사를 위한 선법문을 여는 경허선 선양 법회가 열린다. 법회에는 각 총림 방장스님과 원로스님 등 50여 선지식이 법사로 나선다.

경허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문화기행 프로그램도 마련돼 3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행사는 경허 스님이 주석·수행했던 해인사 범어사 월정사 수덕사 개심사 천장사 서산부석사 등을 여행하며 경허 선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선여행 답사 형태로 진행된다.

추진위원장 지운 스님은 “2012년은 경허 선사 열반 100주년일 뿐만 아니라 조계종 창종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 선사 선양사업을 통해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를 재조명하는 뜻깊은 한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국민을 부처님으로”

결사추진본부 시민 무차 대회 계획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불교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산문을 활짝 연다.

조계종 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는 구랍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추진본부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결사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본부는 이날 결사 추진의 5대 실천과제와 3대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결사 추진을 위해 제시된 핵심 의제는 수행 운영 교육 전법 사회참여의 다섯 가지다. 종단과 추진본부는 결사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불교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실현할 방침이다.

추진본부는 각 의제별 공통 논의 방향도 제시했다. ‘수행’에서는 정규의 제정과 실천, 중무행정의 수행을 통해 불교관과 수행을 다룬다. ‘운영’은 중앙·교구·사찰의 역할 확대, 사부대중 공의와 참여에 의한 운영을 논의한다. 종단운영의 자립과 현실적 대안 모색인 것이다. ‘교육’에서는 우리시대 불교인의 바람직한 이미지와 역할 및 일반인들의 불교 교육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법’에서는 교구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민하고 단위 사찰과 젊은층 전법에 대한 전략을 다룬다. ‘사회참여’ 분야에서는 대표적 사회참여

분야의 실천적 대안과 불교적 참여 모델 등이 제시될 예정이다.

결사추진본부는 또 자성과 쇄신 결사 3대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3대 사업에서는 대중공사, 1000일 기도, 쇄신 전략사업 등이 2년 여의 추진을 목표로 실천된다.

‘대중공사’와 관련해서는 중앙·직할·교구·지역 사찰의 단계적 대중공사를 추진하며 온라인에서 쌍방향 소통을 위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홍보용 핸드북 등을 제작한다. ‘1000일 기도’는 한반도 생명평화를 위한 1000일 기도 입재와 시민을 부처님으로 모시는 시민조정 무차대회, 사부대중 아단법석 등이 추진된다. 시민조정 무차대회는 월 1회 노숙자와 장애인 등을 총무원과 조계사로 초청해 기도를 하고 공양과 공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부대중 아단법석은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 깨달음의 문제 및 현실적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다. ‘쇄신 전략사업’을 위해서는 5대 의제 중 사회참여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평화, 생명, 나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결사추진본부 본부장 도법 스님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계층들을 부처님 맞이 하듯 환영하고 그들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모든 국민들을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소통하고 화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범·주성원 기자**



동국대 정각원 법당 담집에 흑룡이 2012년은 흑룡의 해라고 한다. 동국대 정각원에 가면 천정에 조각된 흑룡을 만날 수 있다. 정각원은 경희궁 정전인 승정전으로 1926년 조계사에 매각돼 동국대 법당인 정각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천정에 조각된 흑룡은 발톱이 7개이다. 칠조룡(七爪龍)은 황제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장식이다. 1899년 경희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병식을 하면서 자주국임을 의미하는 칠조룡으로 바뀐 것으로 추측된다. **글=조동섭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종정 유시, 예경실장 작품 아니냐?

법안 스님 예경실장에 공개편지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법안 스님이 종정 예경실장에게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에 관한 종정스님의 유시와 관련한 진위를 묻는 편지를 발송했다.

법안 스님은 12월 28일 공개한 ‘예경실장께 보내는 편지’에서 “지난달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이 유보되는 일련의 사태가 전개되는 과정을 지켜보면 종단의 장래를 엄중하게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사태의 본질을 확연하게 밝히고자 편을 들었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결사본부장 도법 스님의 종교평화선언과 관련해 종정 예하를 찾아 뵈겠다는 정에 예경실장은 성실하게 설명하지 않고 도법 스님에 ‘불경·무례’ 운운했다”며 “부처님 말씀 어디에도 궁극하고 답답한 것을 물으면 잘 물었다고 칭찬하고 나부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자성과 쇄신 결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더 이상 지지부진해선 안 된다. 예경실장은 더 늦기 전에 본인을 위해, 결사를 위해, 예하를 위해, 해인사를 위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발로참회 하라”고 당부했다.

또, 도법 스님에게는 “결사본부장 스님이 공개편지에서 짚었던 문제에 대한 분명하고도 명쾌한 해결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조동섭 기자**

제9기 교육위원회 구성

덕문·용학·일진·탁연 스님 등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최근 제9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덕문 스님(선본사), 용학 스님(범어사승가대학), 일진 스님(운문사), 탁연 스님(동명사승가대학), 김호성 교수(동국대) 등을 새로 위촉했다.

새 위원들은 8기 위원을 하다 유임된 종호 스님(동국대),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금강 스님(미황사), 주경 스님(부석사)와 함께 9기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조동섭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주 지 성 타

관	장	종 상	교 무	정 수
학	장	덕 민	재 무	종 천
선	원 장	중 우	사 회	중 민
총	무	중 천	포 교	성 요
기	획	정 문	호 법	각 천
			신 도 회 장	변 영 우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사 문화회관
- 불국 유치원
- 성림 어린이집
- 경주 장애인 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